

한형조 교수의 금강경강의 (57)

붓다의 유머 그 날카롭고 따뜻한



2부3장 <금강반야바라밀경>이라는 제목

**금강**  
 금강은 다이아몬드를 가리킨다. 그래서 관조도 이 경전을 '다이아몬드의 경전(Diamond Sutra)'이라고 번역했다. 그러나 그 투명한 보석이 중국에서는 나지 않은 듯 하다. 적어도 해능은 몰랐던 것 같다. 그는 '쇠 중에 강한 쇠', 즉 강철 정도로 생각했고, 그래서 이것을 영양각, 즉 영양의 괄로 깎 수 있다고 순진하게 말했다. 그는 <금강경 구결(口訣)> 서문에서 이렇게 말했다. '불성은 견고하기 금강 같다. 그러나 단단한 불성도 번뇌의 영양각으로 환란될 수 있고, 또 그 번뇌의 영양각도 번뇌의 반철로 깎 수 있다.' 해능은 이 삼자의 관계를 이해하면, 불교의 근본을 깨친 셈이라고 보겠다.

금강은 다이아몬드이다. 그것은 1) 예리하고 2) 견고하며, 3) 그리고 무지 비싸다. 다시 말하면 다이아몬드는 어떤 것도 잘라 버리면서, 자신은 그 어떤 것에도 깨지지 않는 것, 그리고 결혼 예물이나 보석상에서 보듯 비싸고 귀하기 그지없는 물건이다.

추고 있다. 반야는 '지혜'를 가리키지만, 그것은 독특한 특성을 갖고 있는 지혜이다. 그래서 불교가 자리 잡고 난 다음에는, 번역역인 지혜보다 원어인 반야를 더 유동적 화시켰다. 반야는 대인관계를 효율적으로 맺거나, 사무를 능숙하게 처리하는 노하우와는 관계가 없다.

반야는 외부가 아니라 내부를 향한 지혜이니, 마음 근본의 특성과 기능을 이르는 지혜라고 해 두자. 이렇게 하면, 심리학이나 정신분석학을 연상할지도 모르겠다. 같은 마음이니 관련이 있지만 거기 접근하는 방식과 통찰한 결과는 좀 다르다. 반야는 마음의 내적 방해물들을 포착하고, 그것을 제거하는 힘이다. 그 방해물들을 전문적으로 (1) 번뇌, 혹은 망상이라고 부른다.

반야는 1) 이들을 깨부수는 힘이다. 어떤 번뇌나 망상도 이 앞에서 깨어진다. 그리고 이 번뇌는 2) 워낙 견고하여, 그 무엇에도 부서지지 않는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불안정하게 흔들리기는 한다. 해능이 바로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

반야는 바람 앞의 촛불처럼 번뇌와 망상 앞에 흔들리지만, 그렇지만 이 촛불은 결코

꺼지는 법이 없다! 번뇌망상이 태풍처럼 몰아쳐도 번뇌의 불꽃은 꺼지지 않는다. 그런 점에서 이것만큼 견고한 것도 없다.

그리고 그 반야는 3) 지상 최고의 보물이다. 이보다 더 귀한 재산은 없으니, 그것은 삼천대천세계(三千大千世界), 모래알처럼 많은 우주에 걸린 칠보로도 까마득히 견줄 수 없다. 로또 당첨금 정도는 새발의 실타래에 낀 때에도 못 미친다. 사람들은 물줄기도 모른다. '뭐 돈도 안 되는데 그렇게

만 밥을 찾고, 피곤하면 피지르며, 나이가 들면 짝을 생각하고, 돈을 벌기 위해 일을 하는 것 등등이 그렇다.

세속이 추구하는 도피안은 외향적이다. 그것은 늘 밖의 대상을 포섭하고 동화하는 활동인데, 불교는 이와는 달리 내부의 피안에 도달하고자 한다. 마음의 안쪽에 무엇이 있느냐고 물음을 지어, 불교는 불성(佛性)과 정념(正念), 중풍(中風)이 있다.

이 무지, 즉 무명(無明)이 있는 곳이 어떤

요컨대 불교는 이렇다 할 물건을 안겨주지 않는다. 그래서 <반야심경>은 무득(無得)이라고 했다. 불도를 통해 우리는 얻기보다 차라리 잃었다. 그동안 나를 지배하던 불교적인 상념과 정념, 중풍들을 태워버렸기 때문이다. 그때 질식하고 있던 불성이 기지개를 켜는 것이다. 그 때 해야 할 전부는, 하나 덧붙여야 할 것은, 이게 '물론 깨달음'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것은 흡사 기쁨과 가득한 바다에서

상념과 정념, 중풍들은 한번 태운다고 고이 물러가는 것이 아니다. 여러 생을 거쳐 목은 업장(業障)과, 태어난 이후 한 번도 닦아본 적이 없는 습기(習氣)로 하여 처음에는 뻔뻔하기 이를 데 없다. 그러다가 숙련과 더불어 운산이 점점 임의로워지고 안정된다.

그것은 자동자 운전을 익히는 것과 닮았다. 처음에는 클러치, 액셀 브레이크, 브레이크, 운전대가 곱돌지만, 점차 익숙해져서 나중에는 음악을 흥얼거리거나, 지나가는 아가씨의 선글라스가 눈에 들어올 정도가 된다.

깨달음으로 일대사언인이 끝난 것은 아니다. 조주가 빛자루를 들자, 객이 핀잔을 주었다. "먼지 하나 없고 깨끗한데, 뭘 더 쓸려고 그러시오." 조주가 허공을 가리키며 말했다. "이런, 여기 또 하나 날라 오네."

도피안은 내 마음 안에서 일어난 사태이다. 피안은 사공을 잡고 있는 어떤 다른 세계에 있지 않다. 극락은 없다. 쫓과 쫓이 흐르는, 환상의 나라, 서방 정토도 없다. 해능은 <육조단경>에서 "그런 곳은 없다"고 분명히 말했다. 그러면서 "내가 지금 여기서 서방 정토를 보여주랴"라고 했다. 이곳을 떠나가서 이르러야 할 자는 없었다.

지금 여기 서 있는 내 마음 밖에는 어떤 나라도 없으니, 해능이 다시 말한다. "마음이 해매면 차안(此岸)이고, 마음이 깨달으면 피안(彼岸)이다."

해업치는 것과 같다. 양손으로 한번 밀치면, 바다는 깨끗한 속살을 드러내다가, 곧 다시 밀려오는 기쁨에 덮여버린다. 그 전에 다시 양손을 노쳐들 저어 길을 열어야 한다. 한참을 헤치고 용을 써서 나가야 비로소 깨끗한 바다를 지나 부드러운 모래사장에 닿을 수 있다. 거기 시원한 플라 한잔과 쉽지 않은 태양이 빛나고 있다.

그래서 점수(漸修)가 필요하다. 불교적인

경 위와 같은 취지를 이 짧은 글에 담았다. 위의 취지를 이해한다면, <금강경>의 본문은 읽을 필요가 없다. 더구나, 수많은 주석도 돌아볼 필요 없다. 더구나, 내 군소리는 불쑥시게 감도 못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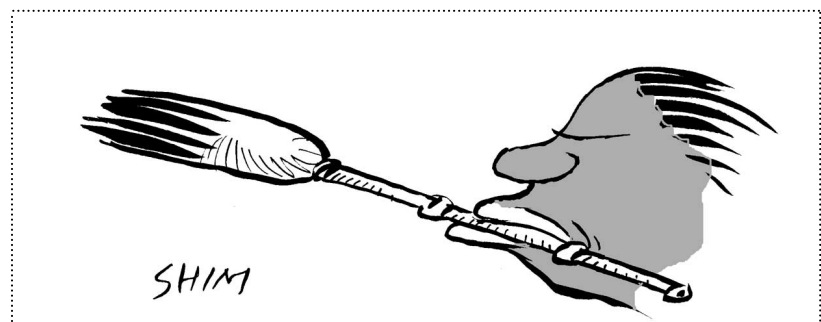
한국학중앙연구원

# 깨지지 않는 '다이아몬드 불성'

치켜 올릴게 무어나, 그거 워선 아니냐" 그렇게 생각한다면, 어쩔 수 없다. 그러나 은행의 잔고는 늘어나는데, 삶이 여전히 공허하고 무의미하다고 느낀다면, 이 말을 수긍할 준비가 되어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다.

**바라밀**  
 바라밀은 도피안(倒彼岸)으로 번역한다. 금강이 반야의 특성을 나타낸다면, 반야는 수단이고, 도피안은 그 반야를 써서 성취해야 할 목적이 해당한다. 도피안, 민통선 근처에 이 이름을 단 절이 있다고 들었다. "피안, 저 언덕으로 가 닿았다"는 뜻인데, 그런데, 거기가 어딘지 아는 사람이 있는가. 저 언덕은 그만 두고, 대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언덕'은 어디인가. 그것부터 분명히 해야 대적이 선다.

어찌 보면 개인이나 사회, 역사와 문명이 어느 것 하나 이 언덕에서 저 언덕으로 가고 있는 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 배가 고프



터지고, 이것을 불식시키고 마음이 밝아진 것이 저 언덕이다. 이 전이는 시간을 요하지 않고 한 순간에 일어난다. 전광석화(電光石火), 발뒤꿈치 한번 돌리면 열리는 세상(世界)에, 불교는 하나도 어렵지 않다.

어려운 것은 다만 이 밝은 지식의 불꽃을 유지하기가 어렵다는데 있다. 다시 말하면, 돈오(頓悟)는 쉬운데, 점수(漸修)는 어렵다.

해업치는 것과 같다. 양손으로 한번 밀치면, 바다는 깨끗한 속살을 드러내다가, 곧 다시 밀려오는 기쁨에 덮여버린다. 그 전에 다시 양손을 노쳐들 저어 길을 열어야 한다. 한참을 헤치고 용을 써서 나가야 비로소 깨끗한 바다를 지나 부드러운 모래사장에 닿을 수 있다. 거기 시원한 플라 한잔과 쉽지 않은 태양이 빛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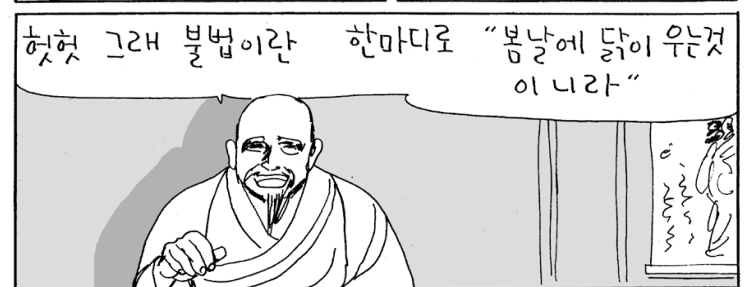
그래서 점수(漸修)가 필요하다. 불교적인

## 주장사파라...

대선화상의 '불법'



조태호



대선화상(2-2): 회양선사의 법손, <전등록>에 기록이 전함.

### 네티즌 교리문답

#### '재(齋)'가 제사인가요?

**질문** 절집에 가면 의식이 매우 많습니다. 49제, 우란분제, 영산제 등 종류도 다양하는데, 그럼 이들의 의식이 모두 죽은 자를 위한 제사인가요? 사실 '재(齋)'와 '제(祭)'의 개념 차이를 잘 모르겠습니다. 어떤가요? (초보불자)

**답1:** 재는 마음을 맑게 하는 불교만의 의식을 의미합니다. 사설 '재(齋)'는 '제(祭)'와 발음도 비슷하고 의식형태도 비슷해서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기 십상입니다. 그 차이점을 한마디로 말하면, 재는 마음을 가지런히 하고 삼가며 맑게 하기 위한 의식이고, 제는 죽은 이를 위해 혼백이나 신령에게 음식을 바쳐서 정성을 들이는 의식입니다. 따라서 '재'는 불교만이 갖고 있는 특수(特)의식인 셈이지요. (불학자)

**답2:** '재'의 어원은 범어 '우파바사타(upavastha)'에서 비롯된 것으로, 그 의미는 본래 '승려의 식사'를 일컫는 말이었습니다. 이것이 스님들에게 식사를 공양하는 의식, 또는 그 외같은 의식을 중심으로 한 범회를 뜻하는 것으로 전용된 것이지요.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부처님께 공양하는 것을 '재'라고 하며, 성대한 불공(佛供)을 일컫는 말로도 쓰입니다. 일반적으로 알려진 '재'로는 49제, 우란분제(盂蘭盆齋), 영산제(靈山齋), 예수재(預修齋) 등이 있지요. (금강소식)

**답3:** '재'는 마음을 가지런히 하고 삼가며 맑게 하는 의식이라는 점에서 계(戒)와 통합니다. 사람이 마음을 가지런히 하거나 맑게 하기 위해서는 스스로 마음에 부담이 될 일을 하지 말아야 하는데 그것을 지켜주는 것이 계율이기 때문입니다. 계에는 살생·도둑·음행·거짓말·술을 금지하는 오계(五戒)와 여기에다 꽃다발을 쓰거나 몸에 향을 바르거나 노래하고 춤추는 곳에 가서 구경하지 말 것, 놓고 넓고 크게 잘 꾸민 평상이나 좌석에 앉지 않을 것, 때가 아닌 때에 음식을 먹지 말 것 등을 포함한 팔계(八戒)가 있습니다. 팔계를 '팔재계'라고도 하지요.

8재계는 출가스님들에게는 가능하지만 재가신도에게는 지키기가 힘듭니다. 따라서 한달에 며칠을 재일(齋日)로 정해 절에 가거나 집에서라도 팔재계를 지키려는 노력이 생겼으니, 매달 초8일, 14일, 15일(보름), 24일, 29일, 30일 등 6재일입니다. (알리미)

붓다뉴스(www.buddhanews.com)에 '네티즌 교리문답' 코너가 있습니다.

1		8		9	
		2	10		
4	12		13		
	5			14	
6				7	

정답은 26면에

### 상식퍼즐

- 가로**
1. 대한불교조계종 제6교구본사로 은진미륵이 있을 2. 두 팔 두 다리 머리 몸통이란 뜻으로 온몸을 이르는 말 3. 의로운 일을 위하여 일으키는 용기 4. 삼나무의 열매 5. 미련하고 우직하게 약속을 지킨다는 뜻의 고사성어 6. 화살을 병속에 던져 넣어 그 수효의 많고 적음에 따라 승부를 겨루는 놀이 7. 호리병박으로 만든 바가지.

### 세로

1. 대자대비와 지혜로써 중생을 괴로움에서 벗어나게 해준다는 보살 8. 스승으로 섬기며 그의 가르침을 받음 9. 임금과 신하의 도리는 의리가 있음을 나타낸 말 10. 타이베이 수도인 나라 11. 용과 벌이 서로 싸운다는 뜻으로, 흰색 두 사람이 승패를 겨루는 것을 이르는 한자성어 12. 피리가 9개 달랐다는 전설 속의 여우 13. 오세아니아주에 위치한 섬으로 수도는 난디 14. 굳게 믿어 지키고 있는 생각.